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아동부 수련회가 26일부터 28일까지 천안 단비교회에서 '참된 예배를 드려요' 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교회학교 부장회의가 12시 30분 유치부실에서 열립니다.

교회에 초록가게가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 집에 정리해야 하는 물건이 있으면 초록가게에 기증해 주세요.

암 8:1~12 / 시 52 골 1:15~28 / 눅 10:38~42
---

마 6:22-24
-----------

식 당 봉 사 : 안정숙 진정숙 이해령 이용숙 최희영 신연화 유명남 김정민  
 다음 주 식당봉사 : 박홍재 차혜심 허명선 정연희 한상경 오정은 정선희 이광욱  
 오늘설거지봉사 : 5남선교회 6여선교회  
 다음 주 설거지 : 두란노 3속  
 새 교 우 : 이동희(3남) 최상훈(청) 배요셉(청)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장마 중에도 간간이 맑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은총의 햇살로 우리의 어둡고 눅눅했던 영혼을 밝고 가볍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젖은 옷을 벗어버리듯 옛 모습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모습을 덧입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타까운 사건과 사고를 반복하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그 유족들의 아프고 쓰린 마음을 위로해주십시오.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서로에게 마음을 쓰며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곽상준 최경미 권미숙 김용진 박효선 김재흥 최희영 김주영 노성희  
 김혜권 박재임 민병배 문현미 박석희 조항미 박창운 허정운 성지현  
 송형철 안보혜 윤두진 이인웅 오송경 이종배 고정림 이현순 정한구  
 왕영순 정현모 조병주 조현권 박아영 최재운 이수정 허성호 진은혜  
 허호범 박성실 홍춘숙 LK

### 감사헌금

김경혜 김정진 김혜정 김혜권 박성호 박은정 박창운 허정운 신민철  
 안정자 우순덕 이광재 이병수 이상재 이인웅 이정은 이준하 전사랑  
 이현순 왕화경 정영례 타릭후사인 박근혜 홍성식 이유리 무명10

### 생일감사헌금

한상익 무명

### 녹색꿈헌금

박호규 강영님 오미경 윤영미 추현영 무명2

	장혜숙 노순옥 김재흥 장영숙 정경례 박홍재 권미숙 이순정 이형숙 안홍숙 정영선 박혜경 김재흥 이범석 신진식 장영숙	백혜숙 박성희 최경미 신영신 진정숙 곽권희 박미영 김금순 윤수진 오현정 서정순 조항미 오자영 이근식 곽상준 김세진	심	심
--	--	--	---	---

마음으로 읽는 글

## 사려니 숲길

어제도 사막 모래언덕을 넘었구나 싶은 날  
 내 말을 가만히 웃으며 들어주는 이와  
 오래 걷고 싶은 길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보다 다섯 배 열 배나 큰 나무들이  
 몇 시간씩 우리를 가려주는 길  
 종처럼 생긴 때죽나무 꽃들이  
 오리 십리 줄지어 서서  
 조그맣고 짙은 향기의 종소리를 울리는 길  
 이제 그만 초록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는  
 산길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것들을 주체하기 어려운 날  
 마음도 건천이 된 지 오래인 날  
 쏟아진 빗줄기가 순식간에 천미천 같은 개울을 이루고  
 우리도 환호작약하며 물줄기를 따라가는 길  
 나도 그대도 단풍드는 날 오리라는 걸  
 받아들이게 하는 가을 서어나무 길  
 길을 끊어놓은 폭설이  
 오늘 하루의 속도를 늦추게 해준 걸  
 고맙게 받아들일 삼나무 숲길  
 문득 짐을 싸서 그곳으로 가고 싶은  
 길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라산 중산간  
 신역(神域)으로 뻗어 있는 사려니 숲길 같은

- 도종환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마음을 열고 주님과 만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모두 버리고 진리 안에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사십시오.

아멘. 주님 안에서 완전한 변화를 꿈꾸지 못하고 늘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릇된 것들을 모두 버리고 주님만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별 모임	신앙의 요체 / 김기석 목사 기도 : 김정민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재훈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윤석철 장로	윤 윤 선생 문홍일 집사

7	영접위원	김인걸 윤성종 송동준 김윤정 김현주 김진경
	헌금위원	방문성 유경순

믿음으로 읽는 글

## 이웃과 나누는 예술, <15층 전시회>

- 아파트 복도를 갤러리로 바꾸는 화가, 이난영 씨 -

옆집에 화가가 살면, ‘티’가 날까? 그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그의 집에 놀러가 방안 가득한 화구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까? 경기도 고양시 샬터마을 3단지 주민들은 새로 이사 온 이웃이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는 걸, 그가 이사 온지 채 한 달이 되기도 전에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복도와 엘리베이터에서 전시회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화가 이난영 씨는 세 달 전, 샬터마을 3단지로 이사 왔다. 처음 만난 아파트는 삭막함 그 자체였다. “도시가 너무 낯설었어요. 게다가 집으로 오는 길에 풀 한포기 없다는 게 견디기 힘들었죠.” 이사 온지 4일 만에 푸른빛으로 가득한 <바다와 흑등고래>를 그려 그가 사는 15층 복도에 전시했다.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임대아파트라 혹시 뭐라 하시면 어쩌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좋아해주셨어요.”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순찰하던 경비아저씨도 “그림이 있으니 한결 예쁘다”며 좋아했다. 난영 씨는 ‘15층 전시회’를 계속했다. 엘리베이터 안에도 작은 풀꽃 그림을 그려서 걸었다. 전단지를 돌리던 이가 ‘마음이 정화되었습니다’라는 메모를 그림 옆에 붙였다. ‘어두웠던 복도가 한층 환해 보이네요’, ‘고맙습니다’라는 메모가 이어졌다. 택배 기사, 방문객, 이웃들이었다.

15층 전시회를 준비하는 글에서 난영 씨는 “예술은 우리 이웃과 나뉘야 하고, 그것은 가능하다”고 썼다. “미술관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고, 그곳에는 우리네 이웃이 없다는 생각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술’은 우리네 이웃과 나뉘어야 하고, 그것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미술과 대안적 전시공간이 그리도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그런 흐름조차도 미술인, 혹은 교양인, 지식인들만을 위한 장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열린 전시는 정말이지 누구나 함께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아저씨도,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퀵서비스 하시는 분도, 우체부 아저씨도, 혼자 사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그들의 어린 손자손녀도, 불륜 커플도, 삶이 고단한 청소년들도, 미술 전시회 따

위에 갈 만큼의 여유가 없는 분들도 모두 관객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 저는 그런 전시회를 나도 모르게 꿈꾸고 있었나 봅니다.”

그는 20대를 평화운동단체 ‘개척자들’에서 보냈다. 경기도 양평에 있는 개척자들은 다양한 이들이 공동체를 이뤄 살면서 분쟁지역이나 재난지역에 달려가 평화교육을 실시했다. 난영 씨는 평화교육 자료에 삽화를 그리면서 미디어 관련 일을 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은 행복했지만, 난영 씨에게는 어려운 점도 있었다... 양평에서 7년을 지낸 난영 씨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공동체를 떠났다. 아무 제약 없이 그리고 싶은 만큼 그림을 그리고, 예술작품 만들고, 그것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

난영 씨는 요즘, 도시가 건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세계가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정말 많다고 느껴요. 이야기가 너무 많아 한 때는 외출하기 전에 심호흡을 해야 했죠. 힘들지만 그게 영감이 돼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그는 외로운 풍경에 특별히 마음이 건드려진다. “요즘엔 경비아저씨들 생각을 많이 해요. 늘 보이니까. 그게 뭐 어렵나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땐 절대로 그 나이에 하실 일이 아닌 거예요. 아파트 경비는 보통 24시간 맞고대거든요. 누울 곳도 없고 작은 의자랑 화장실 한 개가 다인 공간에서요.” 그래서 난영 씨는 조만간 경비아저씨를 위한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누군가가 버린 소파에서 낮잠을 자는 모습, 비 오는 날 우비를 걸치고 순찰을 도는 모습 등이 애잔한 풍경으로 마음에 남는다 했다. ...

꽃은 자신이 꽃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애써 알리려 하지 않아도 누구든 그가 꽃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이 꽃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난영 씨에게 그림은 직업이기보다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는 그림으로 울고 웃으며 분노한다.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들에 그림으로 대답하고, 자신의 삶의 공간에서 그림으로 존재를 증명한다. 그러니 누구든, 그가 그림 그리는 사람임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그의 베란다와 현관 앞에서 빛나는 꽃과 풀처럼 그는 오롯이 그림 그리는 이난영으로 존재할 뿐이니 말이다.

- 인터뷰 : 문양효숙/ 이난영 작가 홈페이지 [www.leenanyoung.com](http://www.leenanyoung.com)